

전주상의 올 상반기 결산 회원기업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성과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상반기 회원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방섭 회장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새만금개발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착공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부 환경론자들의 사업 반대 주장에 맞서 도내 경제 사회 체육 분야의 200개 단체가 뜻을 모아 결성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추진 연합'의 선두에 서서 새만금국제공항 조속 건설에 대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역농산물 구입,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운동, 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소비촉진 업무협약, 회원기업 임직원 의료서비스 지원 협력에 동참하는 등 기업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자리사업과 국가검정 지난해 비교 대폭 증가
극심한 구인 구직난 속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북일자리지원센터의 상반기 인력지원 성과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창출에 있어 하반기에도 더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검정사업의 경우에도 2021년 상반기에만 2만8,000여명의 수험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주상을 방문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3,000여명이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역기업과 극복 앞장
2021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생산인력 부족, 당장 7월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등 노동현안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윤방섭 회장은 "전주상의 임직원 모두는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등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의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며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새만금국제공항 조속 건설 촉구 등 지역현안 해결 앞장 윤방섭 회장 "지역경제발전 도약 위해 힘 다할 것" 강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다지널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연령층과 프로그램을 통해 당초 2021년 상반기인 1,200여명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지원했으며, 추가 인원 배정을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구직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전주상의

대비 85% 증가폭을 나타냈다. 타지역 상의와 비교해도 광복할 만한 성과로 코로나19로 수도권 등 일부 시험장 부족에 따른 수험자 증가도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신청사의 접근성,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도 큰 몫을 담당하는 등 기업우수인재 공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상기자

단군부터 우장춘까지 농업발전 공헌 70명 조명

농진청, '인물로 보는 우리 농업사' 발간

단군의 농사문화에서부터 한국 근대 농업의 아버지 우장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농업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과 학기술사에 큰 영향을 끼친 70인을 선정해 그들의 대표적인 저술과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인물로 보는 우리 농업사 책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에 수록된 단군 신화 속 고대인의 농사문화를 다룬 '단군과 농사일 문화', 우리나라에 처음 면화를 들여온 '문익점과 목면하기', 오늘날 악용 식물학의 바탕이 된 '허준과 동의보감' 등에서는 농업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그 탄생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또 한국 근대농업의 아버지 '우장춘과 원예육종연구, 식량 자급의 전기를 마련한 '허문회와 불일벼' 등에서는 박사들의 삶과 연구 활동을 여러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ah.rihda.go.kr)에서 피디에프(PDF)로도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9월까지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농관원, 농지형상·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국립농산물관리지원원(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

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행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합 이행에 대해서

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지난해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전북지역 내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1000만원 기부금 기탁

전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취임(회장 채정목)은 15일 전북도청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계층에 힘을 보태달라며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마련됐으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계층의 민생살리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신임 연구원장 임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5일 신임 연구원장에 권문일 전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및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 연금을 망라하는 연금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익산' 오늘 견본주택 개관 지역에 들어서는 첫 브랜드 단지... 상징성 높아

현대건설은 16일 전북 익산시 마동 24-5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익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설다.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이 높고,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익산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59~126㎡ 총 454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 22세대 △84㎡ A(A1) 182세대 △84㎡B 38세대 △84㎡C 71세대 △84㎡D(A2) 98세대 △99㎡ 57세대 △126㎡A(A1) 4세대 △126㎡B(A2) 2세대 등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뤄져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비규제지역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 상징성 높아

힐스테이트 익산은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이 높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 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가 조사에서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이



힐스테이트 익산 투시도

있다. 익산에서는 창야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에 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직후 바로 난안권 전매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은 전체 물량의 25%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치가 높은 수요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바동 일대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혼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 전망이다. 익산시청 자료를 보면 단지 주변으로 영등중·공1단지 재건축, 동부시장 재건축, 마동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재건축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1,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KTX·SRT 익산역, 익산 시외·고속터미널 가까워... 영등동 생활권 공유하는 풍부한 인프라

힐스테이트 익산은 단지 바로 앞에 익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선화로가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익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 익산 시외·고속터미널이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익산 내 주요 업무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수월한 직주근접 인지도 갖췄다. 오리목익산공장, LG익산공장, 이수산업 등 349개(20년 4분기 기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익산국가산업단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3km 내에 위치한 익산 제2인간산업단지의 경우 196개(2020년 4분기

도심 가로지르는 선화로 위치 시 전역으로 편리한 이동 가능

주거 선호도 높은 어양동 영등동 생활권 공유할 수 있어

남측향 위주 단지 배치 채광·일조권 '우수' 27일 1순위 청약 접수

기준)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특히 익산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어양동·영등동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우선, 아파트 이전전, 홈플러스 익산점, 롯데마트 익산점 등 대형마트와 CGV 익산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또한 익산시청, 익산시청 제2청사, 송리문화예술회관 등 행정기관과 문화시설 이용도 쉽다.

단지에서 반경 1.5km 내에 동북초, 익산지원청, 이리고, 이리난청여고, 남성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익산시립마동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전북대, 원광대, 한국출력대학 익산캠퍼스 등 다양한 대학교가 있다.

▲마동근린공원 개발 예정... 풍경 정원, 테니스장 등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마동근린공원의 경우 익산시가 진행 중인 '명품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익산시는 익산 내에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4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중 마동근린공원에는 마동 일원 약 24만㎡ 부지에 청소년들과 어린 이들의 생태교육장소를 포함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을 위한 풍경 정원, 테니스장 등이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마동근린공원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주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원 내에 조성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단지 주변에 수도신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신흥근린공원, 유원생태습지 등이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현대건설만의 특화 설계 H 클린 현관 적용, 쾌적한 실내환경 누릴 수 있어

힐스테이트 익산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4㎡(일부 세대 제외)에는 안방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알파룸 등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특히 대부동 세대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통풍 및 환기가 용이하다. 북측형으로 설계되는 전용면적 126㎡는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 테라스가 적용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 27일 1순위 해당 및 기타지역 청약 접수

힐스테이트 익산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힐스테이트 익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견본주택 방문 시 동반 1인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청약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해당 및 기타지역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지는 8월 3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익산은 익산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와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적용했다"며 "마동근린공원 개발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 효과가 예정돼 있고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인 만큼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